

【국 어 25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 ~ 문 3】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나)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 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위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는 오랏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옮겨가며 슬피 옵니다.

(다)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총만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라)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쟁그리네.

무궁화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천고(千古)를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기만 하구나.

【문 1】 (가)~(라)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족의 현실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 ② 대상에 시적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③ 현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 ④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어 순응하고 있다

【문 2】 <보기>는 (나)의 모티프가 된 설화의 내용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시인의 창작 과정을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평북 박천의 진두강 가에 부모와 소녀, 아홉 동생이 살았다. 어느 날 어머니로 흉폭한 계모가 와서 매일 10남매를 구박했고, 아버지도 모른 채했다. 계모의 학대는 심해져서 생모의 유물을 버리고, 남매들에게 끼니도 주지 않았고, 외출도 금지하였다. 세월이 지나 소녀는 박천의 부잣집 도령과 혼약하여 많은 예물을 받았는데, 계모는 이를 시기하여 예물을 모두 빼앗고, 소녀를 장롱에 가두어 불태워 죽였다. 아홉 동생은 죽은 누이가 타버린 재를 헤치고 울었으며, 이 때 재 속에서 접동새가 나왔다. 이 사실이 관가에 알려지자 계모도 같은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졌는데, 여기서는 까마귀가 나왔다. 접동새가 된 누나는 계모가 무서워 낮에 오지 못하고 남이 모두 자는 밤에 와서 아홉 동생들의 잠을 지키며 울었다.

- ① 작품의 공간을 구체화되 향토성이 느껴지도록 하자.
- ②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독백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자.
- ③ 작품의 주제가 한의 정서이니 전통적인 민요 가락과 정조가 나타나도록 하자.
- ④ 누나를 시적 화자로 하여 의붓어미 시샘에 죽은 억울함과 남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도록 하자.

【문 3】 ㉠~㉣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독립을 위한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② ㉡ : 죽은 누나의 한(恨)이 형상화된 대상이다.
- ③ ㉢ :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후렴구이다.
- ④ ㉣ : 국권 강탈의 비극을 감정 이입의 수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문 4】 다음 단위어의 사용이 알맞은 것은?

- ① 마늘 2집 → 마늘 20개 ② 바늘 3쌍 → 바늘 72개
- ③ 북어 2책 → 북어 20마리 ④ 생선 3두름 → 생선 30마리

【문 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이 충무공은 우리나라를 큰 위협에서 구한 영웅이다.
- ② 스위스의 알프스 산은 언제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 ③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는 것을 보니 그가 다시 올 듯도 하다.
- ④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내가 그 자리를 떠난 지가 언제인데.

【문 6】 <보기>와 같이 글쓰기 계획을 세워 보았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주제 :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정부와 관련 단체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 문제 인식 : 출산율이 해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 나. 예상 독자 설정 : 출산을 앞둔 산모와 직장 여성
다. 논지 전개 방향 : 실례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 → 이러한 문제가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 노력 촉구
라. 원인 분석
· 취업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
·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회기반 시설이 취약하다.
마. 자료 조사
㉢ ㉣ · 최근 30여 년 간의 유·초·중등학교의 취학학생수의 변화를 조사한다.
· 직장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실상을 듣는다.
바. 해결방안 제시
· 육아는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고취한다.
㉤ ㉥ ·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를 법제화하여 직장 여성들이 충분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① ㉠ ② ㉡ ③ ㉢ ④ ㉤

【문 7】 다음 글의 밑줄 친 ㉠~㉥의 한자로 올바르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첫째,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는 그의 사람됨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말은 상대방과 주고받음으로써만 늘 새롭게 생겨나고, 현실에 들어맞게 되어 더욱 창조적이 된다. 일방적으로 내뱉는 말은 흔히 빈말이 되어 시들어 버리지만, 대화 속의 말은 늘 객관적인 사실을 ㉠ 지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되는 의문과 저항은 언제나 객관성을 시험하여, 말을 더욱 생산적이 되게 한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의 문을 연 대화는 사람을 불안과 긴장에서 해방시키고, 포근하게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한다. 이같이 대화는 우리의 자아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다.

둘째, 인간의 순간적인 행동, 그리고 나아가 자아 형성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 호칭에 영향을 받는다. 처음으로 어린아이를 가지는 사나이가 ‘아버지’라 불렸을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의 행동과 삶에 크게 작용하며, 그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이 인간의 자아 의식에 미치는 심리적인 규제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직업이나 지위에 대한 의식보다 오히려 ‘선생님’ 혹은 ‘아버지’라 불렸을 때, 그 말들은 순간적으로 나의 행동과 삶에 작용하여 유동적인 행동이나 삶을 늘 일정한 길을 따라 발전해 가게 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곧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우리의 사람됨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를 동일성에 있어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름이 아닌 ㉢ 가명으로 행세하는 사람은 자기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흔히 이름을 버려서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의 동일성과 ㉣ 정체성을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① ㉠ 志向 ② ㉡ 呼稱
③ ㉢ 假名 ④ ㉣ 政體性

【문 8】 다음 시조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한자 성어는?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① 망양지탄(望洋之嘆)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9 ~ 문11】

(가) ㉠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너러신고요.
어귀야 ㉡ 즌 덕돌 드덕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논 덕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정읍사(井邑詞)’-

(나) 늦겨곰 보라매
이슬 불간 드라리
흰 구름 조초 뼈 간 언저레
물이 가론 물서리여히
기랑(耆郎)의 즈시올시 수프리아.
일오(逸烏)나릿 지벼리
랑(郎)이여 디니더시온
므스미 ㉢ 구슬 좇느라져.
아야 ㉣ 자식가지 노포
누니 모돌 두폴 곳가리여
-‘찬기과랑가(讚耆婆郎歌)’-

(다) ㉤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드냐.
이시랴 허더면 가랴마는 제 구터여
㉥ 보내고 그리논 정(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황진이-

【문 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년시절에 대한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②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
③ 대상에 대한 연모의 정서가 내재되어 있다.
④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회한이 잘 드러나 있다.

【문10】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돌’에 의탁하여 자신의 소망과 기원을 담아내고 있다.
②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잘 드러나 있다.
③ ㉢: 시적 화자의 추모의 마음이 집약되어 있다.
④ ㉣: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11】 ㉥에 내재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시리.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기 벗인가 흐노라.
②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혼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느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쉼만 오락가락 흐노매.
③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할사.
닐러 다 못닐러 불려나 푸듯든가
진실(眞實)로 풀릴거시면은 나도 불려 보리라.
④ 쉼은 듣는 대로 듯고 벗은 쉼 대로 쉼다.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러 불세,
어디서 길가는 소님네 아는디시 머무는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2 ~ 문13】

네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텃天상上 帛白옥玉경京을 엇디하야 니離別別하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혼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구뎡뎡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생각하고 니러 안자 해여히니 내 몸의 지은 죄 죄기 빠혀히니 하눌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를하라 설워 플터 헤니 조造물物의 타시로다.

글란 생각 마오. 미친 일이 이서이다. 님을 피서 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ㄱ톤 얼굴이 편히실 적 몇 날일고. 춘春한寒 고苦열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秋일日동冬텃天은 뒤라셔 되섯논고. 죽粥조早반飯 조朝석夕 되 네와 ㄷ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 다히 소消식息을 아므려나 아자 히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가. 내 므옴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뎡뎡 피히올라가니 ㉠구름은 크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산山천川이 어둑거니 ㉢일日月을 엇디 보며 지咫척尺을 모르거든 천千里를 브라보라. 출하리 물ㄱ의 가 비 길히나 보자 히니 ㉣브람이아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뵈 빈만 걸렸느니. 강江텃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消식息이 더욱 아드혼더이고. 모茅첨簷 춘자리의 밤뎡만 도라오니 반半벽壁청靑등燈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하니니 저근뎡 녀力진盡하야 풋줄을 잠간 드니 정精성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ㄱ톤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므옴의 머근 말숨 슬크장 숲자 히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히며 정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히니 오딘된 계鷄성聲의 잠은 엇디 씨뎡뎡고.

어와, 허虛스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은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落월月이나 되야 이서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쳐리라.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준 비나 되쇼셔.

【문12】 ㉠ ~ ㉣ 중, 함축적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문13】 표현 방식이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늘날의 학생들은 학문 연구는 고사하고 실용적인 공부나 하려 한다.
②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③ 지도층이 생활의 본을 보이면, 아랫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④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다.

【문14】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인 것을 고르면?

- ① 지난 여름에도 가물이 심하더니 올해도 비가 오지 않아 걱정이다.
② 갓 태어난 소뿔아리 한 마리가 모이를 먹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③ 100년은 죽히 되어 보이는 빨간 벽돌담에는 담쟁이 덩쿨이 무성하게 퍼져있었다.
④ 사람은 윗어른을 어떻게 모시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됃됨이를 알 수 있다.

【문15】 다음 중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낱말이 아닌 것은?

- ① 다달-이/매-달 ② 모-내다/모-심다
③ 까다롭다/까탈-스럽다 ④ 욱심-꾸러기/욕심-쟁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6 ~ 문17】

내가 상해에서 본 일이다.

늬은 거지 하나가 전장(錢莊)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일 원짜리 은전 한 닢을 내놓으면서,

“황송하지만, 이 돈이 못 쓰는 것이나 아닌지 좀 보아 주십시오.”

하고, 그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과 같이 전장 사람의 입을 쳐다본다. 전장 주인은 거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돈을 두들겨 보고,

“중소.” 하고 내어 준다.

그는 ‘중소’라는 말에 기쁜 얼굴로 돈을 받아서 가슴 깊이 집어 넣고 절을 몇 번이나 하며 간다. 그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며 얼마를 가더니, 또다른 전장을 찾아 들어갔다. 품 속에 손을 넣고 한참을 꾸물거리다가 그 은전을 내어놓으며,

“이것이 정말 은으로 만든 돈이오니까?”

하고 묻는다. 전장 주인도 호기심 있는 눈으로 바라다보더니,

“이 돈을 어디서 훔쳤어?”

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주웠다는 말이나?”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빼드립니다까? 떨어지면 소리는 안 나나요? 어서 도로 주십시오.”

거지는 손을 내밀었다. 전장 사람은 웃으면서

“중소.” 하고 던져 주었다.

그는 얼른 집어서 가슴에 품고 황망히 달아난다. 뒤를 흘끔흘끔 돌아다보며 얼마를 허덕이며 달아나더니 별안간 우뚝 선다. 서서 그 은전이 빠지거나 않았나 만져 보는 것이다. 거친 손바닥이 누더기 위로 그 돈을 칠 때, 그는 다시 웃는다. 그리고 또 얼마를 걸어가다가 어떤 골목 으스스한 곳으로 찾아들어가더니, 벽돌담 밑에 꾸그리고 앉아서 돈을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얼마나 열중해 있었는지 내가 가까이 간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 줍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내 말소리에 움칠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뺏아 가지 않소.”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일원짜릴 줍니까? 각전(角錢) 한 닢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닢 주시는 분도 백에 한 분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닢씩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마흔여덟 닢을 각전 닢과 바꾸었습니다. 이러기를 여섯 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대양(大洋) 한 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더라고 여섯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던 말ियो?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문16】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② 과거의 체험을 현재화하여 사건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③ 결말을 간결하게 제시하면서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인물에 대한 직접적 설명과 주관적인 논평을 통해 교훈을 준다.

【문17】 위 글의 거지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자신이 지닌 소유욕의 허망함을 깨닫는다.
②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다.
③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남의 도움 없이 살아 나간다.
④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돈을 모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8 ~ 문19】

우리 나라는 단일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불행한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은 비록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남과 북에서는 갈라지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과 같은 언어 규범도 그 뿌리가 동일하며,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언어적 기반에 공통되는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언어생활의 현실은 점점 더 이질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질화는 주로 체제와 이념에 따른 언어관과 언어정책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는 같은 언어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적(唯物論的) 언어관에 근거하여 언어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렇게 수립된 정책을 당의 통제하에 확립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언어는 특히 1966년에 시작된 이른바 문화어 운동 이후부터, 일반적인 언어 변화의 속도를 훨씬 앞질러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남한에서도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언어가 상당히 변화하였기 때문에, 결국 남북한의 언어는 이질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의 통일이라는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통일된 뒤에 등장할 문제들을 조망해 보기 위해서도 우선 북한말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말에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과 형태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가 많다. ‘동무, 인민’등의 단어가 남한에서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지니와, 가령 ‘아가씨’같은 말도 좋은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고 봉건 사상이 담긴 부정적인 의미가 첨가되어 사용된다. ‘예술’이라는 말도 본래의 의미 외에 ‘기술과 수련’이라는 뜻으로 확대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제도의 차이에 따른 언어관 및 언어 정책의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으로서, 문화어 정책 수립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는 문제를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본다. 언어의 표현면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문제를 통해서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문화어의 문제는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고, 말과 글을 통한 전투성과 호소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서는 말을 다듬는다고 하여 한자어를 몰아 내고 눈에 ㉠ 선 고유어를 많이 만들어 오히려 언어 생활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도 없지 않으나, 그 정신만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없지 않으나 남한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어 가며 우리 말과 글을 가꾸어 왔다. 또, 남북의 언어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더라도 아직은 이질적인 면보다는 공통적인 면이 더 많다. 특히, 글말의 경우, 약간의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맞춤법이 모두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은 장차 남북한의 언어 통일을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다. 이제 남북한의 언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문1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남북한의 언어적 기반에는 공통되는 점이 많다.
- ② 남북한의 언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 ③ 남한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북한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언어가 변화했다.
- ④ 남한어와 북한어에는 의미는 같은데 형태는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가 많다.

【문19】 단어의 쓰임이 ㉠과 같은 것은?

- ① 그의 행동은 선 수박의 꼭지를 도린 것이다.
- ② 너의 생각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설다.
- ③ 어제 잠이 설었던 탓인지 하루 내내 힘이 없다.
- ④ 오랜만에 찾아온 집이라서 대문부터 설게 느껴진다.

【문20】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잘못된 것은?

- ①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쳐서 꿈쩍을 못한다.
- ② 학생들은 공책에 책받침을 받치고 쓴다.
- ③ 술을 거르기 위해서 체에다 받쳤다.
- ④ 새로 부임한 군수에게 음식을 만들어 바쳤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21 ~ 문22】

(가) 님이여, 당신은 백 번이나 단련한 금(金)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 별의 첫걸음이여.

님이여, 당신은 의(義)가 무거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밭에 복(福)의 씨를 뿌리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약자(弱者)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菩薩)이 되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 바다에 봄바람이여.

(나)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문2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시의 대상은 일상적이고 상대적인 존재이다.
- ③ 어구의 반복을 통해 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간절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문22】 (가), (나)의 '눈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눈물'은 님이 지닌 사랑의 마음과 관련된다.
- ② (가)의 '눈물'은 님이 지닌 인간적인 면을 암시한다.
- ③ (나)의 '눈물'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 ④ (나)의 '눈물'은 웃음을 지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23 ~ 문24】

(엄동설한에 장끼가 아내 까투리와 함께 자식들을 거느리고 먹을 것을 찾아 들판을 헤매다가 콩 한 알을 발견한다. 까투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장끼는 고집을 부려 먹으려고 한다.)

까토리 홀로 경황(驚惶) 없이 물러서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 조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뿌리로 들입다 콧 찍으니 두 고패 둥글어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博浪沙) 중에 저격 시황(狙擊始皇)하다가 버금 수레 맞히는 듯 와지끈 똑딱 푸드득 변통 없이 치였구나.

까토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을 잘 들어도 패가(敗家)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亡身)하네.”

까토리 거동 불작시면, 상하 평전 자갈 밭에 자락 머리 풀어 놓고 당글당글 굴글면서 가슴 치고 일어 앉아 잔디풀을 쥐어 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붕성지통(崩城之痛) 극진(極盡)하니,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도 불상타 의논하며 조문(弔問) 애곡(哀哭)하니 가련 공산 낙목천(落木天)에 울음소리 뿐이로다.

까토리 슬픈 중에 하는 말이,
“공산야월(空山夜月) 두견성(杜鵑聲)은 슬픈 회포(懷抱) 더욱 설다. 통감(通鑑)에 이르기를, 양약이 고구(苦口)나 이어병(利於病)이요, 충언(忠言)이 역이(逆耳)나 이어행(利於行)이라, 하였으니 자네도 내 말 들었시면 저런 변 당할손가, 답답하고 불쌍하다. 우리 양주(兩主) 좋은 금슬(琴瑟) 놀더러 말할소나, 슬피 서서 통곡(痛哭)하니 눈물은 못[沼]이 되고, 한숨은 풍우(風雨)된다. 가슴에 불이 붙네, 이내 평생 어이 할고.”

장끼 거동 불작시면 차위 밑에 엎디어서,
“예라 이년 요란하다. 후환(後患)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이 뉘 있으랴. 선(先) 미련 후 실기(後失期)라. 죽는 놈이 탈 없이 죽으랴, 사람도 죽기를 맥(脈)으로 안다 하니 나도 죽지 않겠나 맥이나 짚어 보소.”

까토리 대답하고 이른 말이,
“비위맥(脾胃脈)은 끊어지고, 간맥(肝脈)은 서늘하고, 태충맥(太沖脈)은 건어가고, 명맥(命脈)은 떨어지네. 애고 이게 웬 일이요, 원수로다. 원수로다. 고집불통 원수로다.”

장끼란 놈 하난 말이,
“맥은 그러하나 눈청을 살펴보소. 동자(童子) 부처 온전한가.”(중략)

장끼란 놈 반눈 뜨고
“자네 너무 설워 마소, 상부 잣은 네 가문(家門)에 장가가기 내 실수라. 이말 저말 잔말 마라, 사자(死者)는 불가부생(不可復生)이라 다시 보기 어려우니, 나를 굳이 보려거든 명일 조반 일찍 먹고 차위 임자 따라가면 김천(金泉) 장에 걸렸거나 전주(全州) 장에 걸렸거나 청주(淸州) 장에 걸렸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감영도(監營道)나 병영도(兵營道)나 수령도(守令道)의 관청고(官廳庫)에 걸리든지 봉물(封物) 집에 었혔든지 사또 밥상 오르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혼인(婚姻)집 폐백 건치(乾雉) 되리로다. 내 얼굴 못 보아 설워 말고 자네 몸 수절(守節)하야 정렬부인(貞烈夫人) 되옵소서, 불쌍하다, 이내 신세 불쌍하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내 까토리 우지 마라. 장부 간장 다 녹는다. 네 아모리 설워하나 죽는 나만 불쌍하다.”

장끼란 놈 기를 쓴다. 아래 곱패 번디디고 위곱패 당기면서 버럭버럭 기를 쓰나 살 길이 전혀 없고 털만 쪽쪽 다 빠지네.

【문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풍자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 ③ 생생한 장면 묘사로 현장감을 부여한다.
- ④ 인격화된 동물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문24】 위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바는?

- ① 피지배 계층의 무능함
- ② 세속적 가치의 소중함
- ③ 종교 집단의 부도덕함
- ④ 권위에 의한 약자의 억압

【문25】 다음 글의 밑줄 친 ‘본디 내해다마론 아사놀 엇디흐릿고.’에서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태도와 가장 이질적인 것은?

식볼 볼기 드래
밤 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 보곤
가르리 네히러라.
둘흔 내해엇口고
둘흔 뉘해인고.
본디 내해다마론
아사놀 엇디흐릿고.

- ①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김영랑 <독을 차고>
- ②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秋收)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 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 ③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신경림 <목계장터>
- ④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풀>